

“114일간의 전쟁”은 끝나고...



| 김상우 / YIN 경제부 차장

‘사스’ 지옥같은 114일간의 전쟁이 끝났지만
삼페인 대신 울음이 터졌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사스’가 아니라 ‘불신’일지도 모릅니다.

그 날은 '114일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자축하는 날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봐도 그렇고, 가까운 월드컵 경기 때 승전보가 날아오는 날에도 그랬듯이 승전의 날에는 삼페인이 터지고, 환호성이 터지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 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페인 대신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전쟁, 특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 전쟁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말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내린 이 날, 그들은 왜 삼페인 대신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난달 말 국립보건원에서 열린 사스평가보고회에서 검역과 치료를 담당 한 보건원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딸을 둔 그녀에게 하루는 36시간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무를 2교대 3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넘어서 36시간씩 일했습니다. 사스 환자 검역을 담당하는 그녀를 대신할 만한 마땅한 전문 대체인력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 잠은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전염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스여서 잘 곳조차 마땅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사스 방역 최일선에서 온 몸을 던지면서 일했던 탓일까, 옆친데 덤친 격으로 그녀에게 사스 감염 의심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조차 맘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이 밥이나 제대로 챙겨먹는지 눈에 아른아른 거렸지만 혹시 그녀로 인해 아프기라도 하면 아픈 것은 둘째치고 딸이 친구들로부터 이른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 집 근처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스 방역 최일선의 이른바 '소총수'라 할 수 있는 그녀는 입원 1주일 격리 입원 2주일을 한 뒤 다시 소총을 잡고 사스 방역 일선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사스와의 전쟁에 나선지 114일, 정부는 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인천공항검역소 모 검역관은 승전의 이 날, 승전기를 보고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사스

와 관련해 입원했던게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그동안 제대로 못돌봤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는 사스와 전쟁 최전선에서 그녀도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정작 가장 큰 두려움은 사스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방역을 할까,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불신을 피부로 느낄 때 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린 것은 바로 그 불신을 최소화 한 자신 스스로 극복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스 관련 환자 치료를 담당한 국립의료원의 모 의사 역시 그녀와 비슷한 소회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사스 관련 속보를 챙기는 언론과 스포츠계는 차라리 사스와의 전쟁 그 자체 보다 더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가 전쟁에 대한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스에 대한 공포심만 조장해 치료는커녕 의료진의 팀워크마저 흔들어 놓아 이러다가는 홍콩처럼 의료진이 먼저 쓰러지는게 아닌가 하는 공포마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자인 자신이 무너지면 더 이상 사스와의 전쟁에서 총을 들 의료진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른바 "총을 당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총을 당길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삼폐인은 터지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들의 이런 노고가 있었기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스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명예를 먹고 산다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적돼 온 개혁 대상, 공무원 그들이었습니다. 묵묵히 박봉속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우리 주변에 찾으면 많습니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PEEK**

